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고모저수지 내고향... ‘물살리기 행사’ 개최

✎ 엄명섭 기자 | ⌚ 승인 2023.05.13 10:48

지자체 협조를 통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ESG경영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가 “2023년 고모저수지(포천시 소흘읍 소재) 내고향물살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지사장 최재철)는 11일, 소흘읍 고모저수지 일원에서 “2023년 고모저수지(포천시 소흘읍 소재) 내고향물살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고모저수지는 소흘읍 지역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용 저수지이나, 최근 뛰어난 경관과 수변산책로 조성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포천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포천시 도시정책과, 소흘읍사무소, 고모저수지 유선업장,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가해 내 고장 고모저수지의 지역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깨끗한 수변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포천시와 지역주민의 인력, 물품지원 및 공사 수거용품, 차량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 2.5톤 및 플라스틱 마대 1톤가량의 저수지 내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최재철 연천포천가평지사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고모저수지가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관리 하는 등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경영을 실천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섭 기자 6k2bbj6116@hanmail.net